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 분야) 3차 실연심의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 분야)
- 회의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11:00 ~ 2025년 3월 14일(금) 19:00
- 회의장소 : 아르코꿈밭극장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남, 김은영, 박정아, 신정화, 이재진, 황진수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창작뮤지컬 분야에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11개 작품을 선정한 후, 3차 실연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연심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80분간의 낭독 공연과 핵심 창작진 인터뷰로 구성되었습니다.

평가는 1·2차 심사와 동일하게 작품성(40%), 사업계획의 타당성(20%), 기대효과(2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관객평가단의 평가(20%)를 합산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 분야) 본공연 제작 지원 대상작으로 총 7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제출된 예산 운영 계획, 작품 규모, 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250백만원, 총 1,649백만원의 지원금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실연심을 통해 대본과 음악뿐만 아니라 연출 계획과 디자인 등 작품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연심을 준비하며 한 단계 점검을 거친 작품들은 소재와 주제 면에서 창작뮤지컬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기존 뮤지컬의 형식적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작품이 현재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감동을 주고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혹은 다소 거리를 두고 있더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삶의 화두를 던질 충분한 이유를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물과 이야기의 설득력, 배우들이 작품의 개연성을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는 무대, 작품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개성 있는 음악적 색채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대를 아우르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본공연 이후 국내외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선보이려는 계획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이 한 해를 대표하는 '올해의신작'으로 자리 잡아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고, 창작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창작 과정에서 제작진의 부담을 덜어 작품의 완성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무대에 올라 새로운 감동과 경험을 선사하며 더 많은 관객이 공연 문화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정된 단체에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단체와 함께해주신 관객평가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 분야 심의위원 일동